[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식 및 '색깔론' 극복과 남북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기 념 사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화해와 공존에서 출발하여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고, 그렇게 일군 평화의 힘으로 통일을 향해 가고자 했던 겨레의 염원이 6.15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휴전선 철책을 뚫어 철도와 도로를 놓고 개성과 금강산을 연 것은 6.15선언의 힘이었습니다. 거기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상봉했고, 경제협력의 기계 소리가 울렸으며, 통일에 대한 희망이 싹텄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오늘의 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대북인도지원을 실질화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금강산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신호가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내 금강산을 열지 못했습니다. 금강산은 열리지 않은 채 적막만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북측위원회는 평양에서 12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라하다 하지 맙시다. 이것은 고발입니다. 이명박정부를 역사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을 함께 기념하지 못한 지 벌써 4년입니다. 그 4년은 어떤 4년입니까? 총성이 오가며 험악한 말이 넘나드는 대결 세태였습니다. 6.15정신의 실종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이제는 저 역사의 박물관에 있던 색깔론을 꺼냈습니다. 겨우 아물어가던 역사의 상처기를 후벼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입니다. 이러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역사를, 저 박정희군사독재정권, 저 전두환살인독재정권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정권을 연장하여 보겠다는 겁니까? 정권을 연장하여 어쩌겠다는 겁니까? 한반도를 급기야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민족의 미래를 손톱 만큼이라고 생각한다면 임기를 마치는 대로 조용히 물러나 앉으십시오. 한반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용히 물러나 앉으십시오.

이명박정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북에 대한 반발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현실

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날 이명박정권 인사들이 방북했을 때의 종북적 언동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발상 또한 반6.15적입니다. 6.15는 성숙을 향한 사투입니다. 북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명박정부에 정책전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제동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명박정부 이후를 준비합시다! 다시 6.15시대를 열어낼 이명박정부 이후를 준비합시다.

동지 여러분!
화해와 협력, 공존과 평화, 통일과 번영의 6.15시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민족사의 흐름입니다. 때때로 생겨나는 역사의 퇴보는 결코 항구적일 수 없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대결의 남북관계 현상이 재현되곤 했었지만 합의서의 정신은 6.15선언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퇴보는 때때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남북 당국 간에 벌어지는 대결과, 수구 언론이 빚어내는 냉전의 언어폭력을 보면서 특권 속에서 퇴화한 반평화세력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야비한 시장주의자나 쫓는 독점입니다. 그들은 냉전을 재생산하여 자신의 이익을 누립니다.
우리는 지금 값비싼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와 한반도 평화는 하나의 연관된 언어라는 교훈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민주평화세력은 민생복지세력과 연대해야 합니다. 평화가 복지의 절대 필요조건입니다. 우리의 연대의 폭을 넓힙시다.

6.15시대는 장애를 겪으며 이렇게 커 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6.15시대는 더 넓고 큰 세상입니다. 민주, 평화, 복지로 구성되는 그 세상을 안을 마음 넓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축 사

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2000년 6월 15일, 우리는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의 정상이 뜨겁게 포옹하던 모습을 감격과 흥분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을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로 바꾸어 놓은 민족사의 대사건입니다. 그리고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화적인 남북통일,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절실합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평화는 매우 각별한 단어입니다. 제국주의 침략과 불법적인 강제병합, 식민통치, 동족상잔의 전쟁과 냉전의 최전선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냉전이 끝나기 전부터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군사정권의 후예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러시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북한과의 공존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직된 남북관계를 남겨놓기는 했지만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추진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족의 공동번영과 화해협력의 약속을 담은 '6·15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10·4선언'을 발표하여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남겼습니다.

난관도 많고 뜻대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20여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모든 성과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철지난 냉전의식에 사로잡혀 남북대결 구도에 빠져버렸습니다. 남북 간에는 상호비방과 위협을 넘어 군사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는 유일하게 한반도 평화를 발전시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와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평화'가 '민생'이고 '밥'입니다. 한반도 평화 없이 민생은 없습니다. 불안한 한반도에서 경제가 꽃필 수 없고, 국민들의 삶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가 열려야 민생도 살아나고 국민의 삶도 편안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할지를 밝혀놓은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은 분명합니다. 그 길은 바로 평화의 길, 공존의 길, 통일의 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관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5.24 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자원협력 강화 등을 비롯해,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우리는 다시 빈틈없는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 갈 것입니다. 6·15 정신으로 돌아가서 김대중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긴장과 대결의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6·15 공동선언 정신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6월 15일

축사

강기갑(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12돌을 전 국민과 물론 온 민족의 마음을 모아 함께 축하합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의 발표는 반목과 대결 지난 분단 50년을 정리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기약하는 민족사적 사건이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막혔던 남과 북의 길이 열렸으며 그 길로 사람과 물자가 오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음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으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며, 평화와 번영 통일만이 남아있다는 확신을, 남과 북은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15 공동선언의 이러한 성과가 지난 4년간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남북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냉각되어 어느새 한반도에는 다시금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 6.15 공동선언의 '상생정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상호간의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에 기초한 대화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12돌을 맞아, 615공동선언을 되살리고 상생의 지혜를 모아갑시다.
615공동선언의 부활만이 우리 민족에게 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열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또한 615공동선언을 되살리고, 실천하는 데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6월 15일

제 안 문

현재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북한은 '사죄냐, 성전이냐'의 최후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수십 분내 북한 핵심 응징' 등 날로 호전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남북 사이에 조성된 이러한 충돌의 위기가 더 이상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통해 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출구와 전환의 계기조차 마련할 수 없는 이러한 충돌 위기 속에서도, 정부 여당은 오직 정략적인 '종북주의'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군사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 정치권과 종교, 시민사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위기 해소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 수밖에 없다.

1. 우리는 여야 정당 등 정치권이 '위기 타개를 위한 남북 국회회담 제안' 등 남북간 충돌 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다방면의 조치를 적극 추진해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선제적 평화조치의 일환으로 '5.24조치 해제 결의안'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민간 차원에서나마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문화 증진을 위한 제반 문제의 논의를 위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비롯한 다층적 접촉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민간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우리의 정당한 노력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정부접촉 없이 민간접촉 없다'는 일방주의적 논리를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화 수호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합의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그리고 다가오는 18대 대통령선거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야 정당과 종교, 시민사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공동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이름으로 각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2012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을 맞아
- 각계 시국회의 결의문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2돌을 맞이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이 땅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6.15공동선언과 함께 남북의 군사적 대결이 중지되고 평화번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서울과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와 중국을 철도로 횡단하여 유럽으로 가는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와 남북대화는 중단되고 한반도는 상호위협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적대적 대결시대로 회귀하였다. 금강산에서의 남북공동행사 추진 계획은 무산되었고, 벌써 4년째 6.15행사를 남북이 각기 분산 개최하고 있다.

이 정부는 남북간 군사 대결도 모자라, 최근에는 종북 색깔론의 광풍으로 이 땅을 다시 냉전과 파시즘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색깔론의 광풍 속에서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에 반대하거나,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가 '종북주의'로 낙인찍히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등 새누리당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러한 시대착오적 색깔 공세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북' 색깔론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이다. 남북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종북'이라는 색깔을 덧씌워 이를 기준으로 국민, 국회의원, 야당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주의 말살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전에, 다른 사상과 신념을 지닌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또한 '종북' 색깔론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과 이념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종북주의의 이분법은 상대방을 "종북주의자"로,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고 멸절시키려는 시도로 귀결된다. 이것의 결말은 관용과 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들의 공존 아닌 공멸일 수밖에 없다.

'종북' 색깔론이 노리는 것은 명백하다. 불법사찰, 4대강 비리, 경제 양극화와 민생위기, 남북관계 파탄 등 온갖 실정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을 색깔론으로 덮어버리고, 다가오는 18대 대선을 냉전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남북의 대립과 갈등이 군사적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 상황은 무시한 채, 오직 정략적인 '종북' 마녀사냥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2돌을 맞아, 한반도가 냉전의 외딴섬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의 새 시대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내외 모든 평화세력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결의한다.

1.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남북을 상생과 공영의 길로 이끄는 대장전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남북 당국의 역사적 합의문서인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

1. 우리는 종북 색깔론 공세에 맞서 '관용과 공존'의 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략적인 '종북'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여당이 한반도 평화위기는 외면한 채, 계속 색깔론 공세에 매달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 우리는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평화체제 건설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5.24조치를 철회하고 남북의 화합과 평화,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에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는 군사력 강화를 통한 안보가 아닌 화해, 대화, 협상을 중시하는 평화적 갈등해결을 통해 평화를 추구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2012년 6월 15일

'색깔론' 극복과 남북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